

중소자재 구매 외면하는 공공기관

광주전남중기청 30건 중 13건 적발 혁신도시 15개 기관 신축공사도 조사

공공기관들이 공사 발주 때 법에 규정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올 1분기 공공기관 발주공사 30건의 설계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이 중 13건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관급자재) 제도를 위반해 적발됐다. 자체 금액은 총 115억원에 달한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이들 공공기관에 설계내역서에 관급자재로 반영하고 자재를 직접

구매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광주전남중기청은 또 공공기관들이 직접구매 예외 적용을 요청한 공사 10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요청금액 440억원 가운데 427억원을 인정하지 않고 직접구매하도록 조치했다. 지난해에도 공사 31건을 심의해 요청금액 1836억원 중 1448억원을 직접구매하도록 했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관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종합공사 20억원 이상, 전문공사 3억원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발주 때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고시한 120개 공사용자재의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이면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자재를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구매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이 생산한 공사용자재를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할 경우 설계가의 85% 이상으로 구매해야 하고 납품대금도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간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은 그동안 자체 직접구매가 불편하고 공사관리도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건설사에 자재구매도 맡겼다. 중소기업은 옮겨 겨자

먹기로 건설사에 적정 가격 이하로 납품하는 경우가 많았고, 납품대금을 주로 어음으로 받아 자금 운용에 애로가 많았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올 상반기 중 지역 최대 공사현장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사옥 신축공사에 대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준수여부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이의중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은 "올 상반기 중 나주 혁신도시 신축공사 현장 등 공공기관이 공사용자재를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수주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술인력 유출 신고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영태)는 4일 광주시 광산구 지역본부 내에 '기술인력 유출 신고센터'를 설치,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신고센터는 대기업의 부당한 중소기업 기술인력 빼가기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됐다. 신고 전화 062-955-9966.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제공)

“나눔테크에 필요한건 제품 홍보입니다”

광주전남중기청 57개사 맞춤형 건강진단 처방전 70건 발급 치유비용 355억원 지원

#. 광주 첨단산업단지 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나눔테크. 중소기업청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이 회사가 개발한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업그레이드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CE·FDA 등 해외규격 인증 획득, 제품 홍보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치유를 위해 자가진단 인터페이스 설치가 권장되고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실제 설치 미흡하며 홍보비용 80% 지원 처방도 했다.

(주)나눔테크 등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57개사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는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4일 올해 처음 도입한 '기업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해 나눔테크·선일영어조합법인 등 광주·전남지역 57개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 건강관리'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이날 지역건강관리위원회를 열어 57개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융자 54건(352억9000만원), 기술개발자금 지원 6건(2억3000만원), 마케팅 지원 4건, 공정혁신 컨설팅 3건 등 총 70건의 처방전을 심의·발급하

고 처방전에 따른 맞춤형 치유를 시작한다. 치유에 드는 비용은 총 355억2800만원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지난달 말까지 109개 중소기업이 기업건강진단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57개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맞춤형 치유를 지원한다.

광주전남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효과 제고와 참여 기업의 편의를 위해 현재 신청에서 치유까지 약 45일 걸리는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중기청은 매일 10일까지 건강진단 프로그램 참여 중소기업을 신청받고 있다. 문의: 광주전남중기청 062-360-9106, 중진공 광주본부 062-600-3000.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차 미시장 진출후 4월 5만대 판매 첫 돌파

기아자동차가 미국 진출 이후 처음으로 한 달 판매대수 5만대를 넘었다.

기아차 미국판매법인(KMA)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5만7505대를 팔아 1994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처음으로 한 달 판매대수가 5만대를 넘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지금까지 기아차가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차를 판매한 것은 작년 5월 4만8212대였다.

기아차의 판매 증가는 중형 승용차 옵티마가 이끌었다. 옵티마는 3월에 1만5008대가 팔려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17.8%가 늘었다.

높은 연비와 독특한 디자인이 장점이었던 올 모델은 전년 동기 대비 35.7%가 늘어난 1만3607대가 팔렸다.

이밖에 미국 시장에서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쏘렌토도 1만303대가 판매됐다. 기아차는 최근 연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소형차 리오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천509대가 팔렸다고 밝혔다.

현대차도 지난 달 미국 시장에서 6만9728대를 팔아 전년 동기 대비 12.7%나 증가한 우수한 성적표를 받았다.

2만3281대가 판매된 쏘나타와 1만9681대가 팔려나간 엘란트라, 그리고 8337대의 엑센트가 출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연형뉴스

박홍석 광주상의 회장 취임

박홍석(사진) 제21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3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외부 초청인사 없이 광주상의 임직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 회장은 취임사에서 "여러 회원업체의 성원과 함께 의원 만장일치로 제21대 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지역경제와 회원업체를 위해 힘써 준 광주



상의 임직원의 노력 덕분"이라며 "21대에는 회원업체의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명실상부한 종합경제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2,046.90 (-2.39)
코스닥지수	502.97 (-12.86)
금리 (국고채 3년)	3.56%
원·달러 환율	1,129.50원 (+7.7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美 디트로이트·산호세, 中 북경·심천, 호주 시드니,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기업 해외진출 기지 생겼다

광주테크노파크

27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광주테크노파크가 3개월만에 미국 디트로이트 등 7개 도시에 해외비즈니스센터를 잇따라 개설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 1월 필리핀 마닐라에 이어 지난달 미국 디트로이트와 산호세, 중국 북경·심천, 호주 시드니, 뉴질랜드 오클랜드 등 세계 주요도시 6곳에 해외비즈니스센터를 추가로 개소,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 도시인 미국 디트로이트에는 자동차 부품 중심으로, 실리콘밸리 인근인 산호세에는 광산업 진출을 모색한다. 또 초고속인터넷과 광산업 관련 시장 수요가 유망한 호주 시드니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도 센터를 열어 지역 광산업 업체들의 시장 확대를 꾀한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오는 27일까지 이들 센터를 통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중소기업을 모집 중이다.

해외 비즈니스센터는 해외영업인력이나 해외마케팅 여건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의 현지 영업 및



지난달 19일 중국 베이징 캔빈스키호텔에서 유동국 광주테크노파크 원장과 김점권 베이징비즈니스센터 센터장이 센터 운영 협력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테크노파크 제공)

마케팅을 대행하는 해외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초대 센터장은 삼성전자, 포스코, LG전자, 현대중합상사 등 대기업 출신의 현지 한국인들이 맡았다. 이들은 현지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경험과 인적네트워크를 갖춰 지역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지난 1월 문을 연 필리핀 마닐라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인 (주)프리모와 필리핀 차량용품 유통업체인 예셀 엔터프라이즈 간에 10만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마닐라센터는 한 발 더 나가 지역 참여기업들의 제

품을 상설 전시하는 광주제품전시관을 이달 말 오픈할 예정이다.

호주 시드니센터도 최근 의료기기 수입유통업체인 오스트레일리아 디피브릴레이터(Australian Defibrillator)와 1000만달러 규모의 (주)나눔테크 자동차제동기(AED)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해외비즈니스센터가 3개월만에 성과를 냈으므로 광주테크노파크는 오는 5월 중동지역 아랍에미리트, 7월 유럽지역 독일·영국·프랑스 등에 센터를 추가 개소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의 신문은] 세계 석학들과의 토론

신문을 읽으며 훌륭한 사람들의 생각을 만납니다
새로운 지식이 되어 사고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신문은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입니다

누가 생각을 키운다
"신문은 가장 큰 학교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